

사회



“삼색포도 따기 바빠요”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삼색포도 따기’ 체험행사가 열린 김정호(42)씨 포도 과수원에서 중흥어린이집 아이들이 포도를 따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유·초·중·고교생 3년후 2만4천여명 감소

광주지역 유·초·중·고교생 숫자가 오는 2015년에는 올 현재보다 2만 40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교육 여건 변화 전망’에 따르면 관내 유·초·중·고교생 숫자는 지난해 26만 6662명에서 올해 26만 155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25만6023명으로, 2014년에는 24만 5469명, 2015년에는 23만 717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무려 2만4375명이 감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생은 지난해 1만8549명, 올해 2만795명, 내년 2만3046명으로 늘어나지만 2014년부터 2만6599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는 올해 10만 3047명에서 내년에는 9만5969명, 2014년 9만2579명, 2015년 9만1198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올해 6만 7004명에서 2015년에는 5만6591명으로, 고교생은 올해 6만9134명에서 6만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도 1호선 나주 구간 빨라진다 추석 앞두고 교통여건 대폭 개선

남평우회도로·우회도로 26일 조기 개통

작은 사고와 상습 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도1호선 나주 구간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12일 국도 1호선 남평우회도로(광주시 남구 양과동~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9.93km 구간과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양곡면 장산리~금천면 석천리) 10.6km 구간을 추석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남평우회도로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남평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남구 방면에서 곧바로 나주시 산포면으로 연결된다. 특히 이들 두 구간 개통으로 광주에서 나주·영암·강진·해남·장흥 등 전남 서남부권을 오가는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자명 익산국도관리청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나주를 축으로 하는 광주·전남권의 교통망이 크게 개선돼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도1호선 나주구간 우회도로 위치도

특히 이들 두 구간 개통으로 광주에서 나주·영암·강진·해남·장흥 등 전남 서남부권을 오가는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자명 익산국도관리청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나주를 축으로 하는 광주·전남권의 교통망이 크게 개선돼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기상청 날씨, 우산 챙기세요, 기상예보, 지역별 날씨, 바다 날씨, 주간날씨

벌점 부과 대량실직 우려 속 과태료 시민 혈세로 낼 수도

광주남부경찰, 시내버스회사에 부과 방안 검토

수천 건에 이르는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중앙선 침범 모습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벌점 부과에 따른 버스 기사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광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버스업체가 과태료를 부담할 경우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올 초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일주일새 광주지역 6개 시내버스회사 운전자들이 특정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진 3330건을 찍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이달 들어 A업체로부터 기사명단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1300여건을 해

당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운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1건당 벌점 30점과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버스회사가 운전기사 명단을 제공했으나 나머지 5개 버스회사들은 여전히 고만장위하며, 일부 업체는 명단 제공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구간을 지나는 8개 노선 수 백여명의 운전기사가 7일간 5차례 이상 중앙선을 침범해 벌점이 150점 이상을 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1년 내 12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1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은 버시기

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버스노조, 운송조합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에 버스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 회신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올 경우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31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던 버스업체가 3억3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조사를 벌여 중앙선 침범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삼거리~살레시오고 입구 커브구간의 구조 개선을 북구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수차례 위반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전지역 가을 비

기압골과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광주·전남 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오는 14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14

일 오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5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다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오는 16~18일에도 북상하는 제16호 태풍 ‘산바’(SANBA)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17~18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0대 사업가 필리핀서 암매장된채 발견... 3명 조사

40대 한국인 사업가가 필리핀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은 정모(41)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김모(34)씨 등 한국인 3명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 등은 지난 8월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

씨를 차에 태워 수건으로 입을 막고 테이프를 봉해 질식사시킨 뒤 시신을 주택가 앞마당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에게 27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습지가 열을 전인 지난 8월 13일 사업차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가족은 정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열흘 뒤 필리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자건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